

“인권 옹호·정의 실현·사회약자 보호 최선”

장정희 신임 광주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청년변호사 우선 배려·변호사 공익적 가치 실현 인권도시 광주 대표 법조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속

“인권 옹호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변호사회는 13일 “지난 12일 광주지방법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 및 각 지회(순천·목포·해남) 지정투표소에서 제57대 임원(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정기 선거’를 통해 제57대 광주지방법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장정희 변호사(54·연수원 28기)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회장은 영광 출신으로 영광 해통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변호사 개업을 해 현재는 ‘법무법인 감동으로’ 대표변호사로 활



동 중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지방법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했고, 2019년 광주지방법변호사회 제2부 회장, 2021년 제1부 회장을 맡았다.
그는 지역 법조계에서 민 형사를 막론하고 각종 법리에 두루 밝은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장 신임회장은 오는 2023년 1월19일 광주지방법변호사회 제76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장 회장은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변호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변호사회에 주어진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다하면서 광주지방법변호사회가 쌓아놓은 훌륭한 전통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회장은 “인권도시 광주 대표 법조 단체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법률구조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인권 옹호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022년도 정기 선거에서 광주지방법변호사회 감사에는 최정익(54·법무 12기) 변호사, 고운오 변호사(51·연수원 37기)가 당선됐다.

/오복기자

빛가람에너지밸리 SW대회 광주대 2개팀 ‘장려상’ 수상



이승민 배랑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2개 팀이 최근 한전KDN이 주최한 ‘2022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에서 대학생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이거대여!(이승민·권형택·고윤호·심우석·이상민)팀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솔루션 작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그렇게하조!(배랑현·한은진·임민선·지용석·조서빈)팀은 전통키보드 관리 모듈을 개발해 높은 점수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원)생과 마이스터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경진대회 대학부는 총 42개의 작품이 출품돼 본선에 진출한 14개 작품이 경쟁을 펼쳤다.

이승민(4학년) ‘이거대여!’ 팀장은 “수상한 작품은 물론 공유를 통해 중고 상품의 가격 절감 효과뿐 아니라,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 혹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뒤에 최종 결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페이지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조!’ 배랑현(3학년) 팀장은 “전통 키보드는 2인 이상 탑승할 수 없지만, 이용자들의 안전과 2인 이상 탑승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모듈(API)을 제안해 악성 사용자를 찾아내고 패터로(벌금) 납부 대상이라는 사실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김성재 조선대병원 교수 SMR 학술상

조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재 교수가 2022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SMR(Sleep Medicine Research) 학술상을 수상했다.

13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재 교수가 SMR(Sleep Medicine Research)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아침형-저녁형 일주기 유형별 수면시간, 주간졸음 및 카페인 사용에서의 남녀간 차이’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의 논문은 일주기유형과 관련된 수면습관의 성별간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 SMR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또한 김 교수의 논문은 수면의학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대한수면학회 공식 영문학술지 Sleep Medicine Research 2022년 3호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SMR 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면의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등문·동창회

●2022년 금성중학교 동문동창회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회장 정길선)=17일(토) 오후 5시 금성중학교 체육관.

결혼

●한재권(전 담양경찰서 고서파출소장)·이혜경씨 차남 윤종근, 김시용·정연희씨 장녀 나연양=17일(토) 오후 3시 그레이스K부동산.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1047-18(화전리 35-8), 051-747-8578, 010-3645-5894.

●유영수(전 한국전력 해남지점)·이명희씨 아들 준영근, 정중세·김미영씨 딸 혜선양=17일(토)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터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

●강창섭·김형신씨 아들 정현군, 김보곤(DK 회장)·차상례씨 딸 남희양=17일(토) 낮 12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래드웨딩홀 4층 라비엔홀.

부음

●곽영순씨 별세, 장만채(전 전남교육감)·장용채(목포해양대 교수)씨 모친상=발인 15일(목) 오전 8시 순천향국립병원 장례식장 VIP실(061-723-4444).



광주신세계안과,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

광주신세계안과는 13일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이웃 사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김지환 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광주신세계안과 박영길 명예원장, 김영희 총무원장, 세광학교 김선미 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랑의 건강계단’은 지난 2015년 7월 신세계안과의 후원을 통해 상무역 4번 출구에 한 명의 시민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10원이 적립되는 기부방식으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총 200여만원의

시민들이 건강계단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약 4천만원의 기부금과 800여만원의 안전건강검진권이 적립됐다. 올해 모인 기부금 중 500만원은 애자람그룹을, 광주주여여성지원센터, 세광학교 등에 전달됐다.

박영길 광주신세계안과 명예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들 힘든 가운데 사랑의 건강계단을 통해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고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광주도시공사, 어르신 장수사진 전달 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영구임대아파트 56세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장수사진을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사진 촬영은 광주도시공사가 재료비, 메이킹 비용 등을 지원하고 광주인

스튜디오의 사진촬영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됐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 경제 상황과 화학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정리하며 2023년의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 석유 화학 산업 전망에 대해 “정유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원 수요 확대에 많은 원유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양호한 업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석유 화학 제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각 국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겹치면서 수요 회복이 제한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경기자



한국생활개선목포시연합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한국생활개선목포시연합회는 13일 “최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2022 농촌사랑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급속한 농업 환경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16명),

목포우리집(아동복지시설)에 쌀(100kg) 전달, 2050 탄소중립 실천결의 공동선언 등이 진행됐다.

김양순 한국생활개선목포시연합회장은 “지구 환경을 살리고 농업·농촌·농업인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자는 마음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결의했다”며 “농업인 4개 단체가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목표=정혜선기자



순천도사초교, 이웃사랑 김장 체험·나눔 실천

순천도사초등학교는 13일 “최근 학생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를 수확해 이웃 사랑 김장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도사초교는 학생들이 지난 9월 배추와 무, 갓, 쪽파 등의 모종과 씨앗을 심어 수확한 채소로 학부모회와 학생들, 교사,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김장 체험·나눔 대장 행사를 개최했다.

8일에는 학생들이 직접 텃밭에서 배추를 수확해 나르고 학부모들이 배추를 소금으로 절였다. 9일에는 배추를 뒤집고 10일에는 학부모회에서 배추를 씻고 양념거리 채소들을 다듬어 씻었다. 11일에는 양념에 넣을 각종 채소를 썰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12일엔 학생·학부모가 함께 김장하기 체험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아이들에게 김장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보여줬으며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분위기 속에서 김치에 양념을 바르기도 했다.

특히 학생자치회는 김장하기를 통해 마련된 김치를 도사동 소재의 20명의 특기노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했다.

교사들은 “직접 가꾼 채소로 김장하기 행사를 통해 생태 교육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 행사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보람있는 행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순천=남정민기자



광양경제청, 화학분야 투자유치 자문위원 간담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최근 서울 양재동에서 2022년 GFEZ 화학분야 투자유치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 경제 상황과 화학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정리하며 2023년의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 석유 화학 산업 전망에 대해 “정유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원 수요 확대에 많은 원유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양호한 업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석유 화학 제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각 국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겹치면서 수요 회복이 제한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은 여수 석유화학 국가 산업단지 등 화학 산업 클러스터 조건을 갖추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의 친환경 산업은 탄소 중립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기회로 광양만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해 광양만권의 전통적 성장동력인 석유 화학 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이차전지 소재·기능성 화학 위주의 산업군을 투자유치 타깃으로 설정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최선국 도의원 ‘전남 산림환경대상’ 입법부문 대상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목포1)이 (새산림환경포럼 주최 2022년 전남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산림환경대상은 (새산림환경포럼에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한 공로자를 시상하는 산림 분야의 권위있는 상이다.

지난해부터는 전 국민의 산림환경 보존의식을 확산하고자 시상 규모를 확대해 광역자치체별로 7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올해로 두 번째 시상이 이뤄졌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형 산림순환경영 모델과 목재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산림환경 분야 조례 2건을 잇따라 제정하고



아동청소년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실의 목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과 연계한 전남 산림산업 육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선국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한 산림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기자